

“어머니의 마음”

삼하 21:7-14

일제 강점기 시절,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게 되자 고국에 계신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공부에 지장이 있으니 피아노 구입을 위해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피아노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에 가서 솔방울을 모아 팔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개의 솔방울 주워서 그것을 팔아 그 당시 돈으로 400 원을 만들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흥렬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음악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고 제일 처음 작곡한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같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효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만큼 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종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효에 대해 덜 강조하는 종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효에 대한 교훈은 매우 강력합니다.

(신 5:16)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지키는 자는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있을 시는 단호하게 징계하였습니다.

(신 21:18)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신 21:21)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신 27:16)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성경은 효자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계명에서 4 계명은 하나님 사랑, 5 계명에서 10 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 중 첫 계명이 바로 5 계명인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지만 부모 공경인 5 계명만은 지키면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5 계명이 꼭 지켜야 하는 계명이면서도 결코 지키기 쉬운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모는 열 자식을 거느리지만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 나오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에 대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에 갑자기 기근이 몰아 닥쳤습니다. 만 3년이 넘도록 기근이 계속되자 다윗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기근이 오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기브온 백성들을 아무 이유 없이 학살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이 기브온 백성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며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화친 조약 덕분에 기브온 백성들은 수백년 동안 별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평화로운 분위기는 깨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죄도 없는 기브온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화친조약을 함부로 깨뜨리는 일을 큰 악으로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 기근이 몰아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이유를 알게 된 다윗은 기브온 백성들 중에 대표자를 불러 “어떻게 하면 당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사울의 자손중에서 아들 일곱사람을 선택하여 재물로 내어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 맺힌 한을 풀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협상조건을 수락하고 사울의 자손 중에서 일곱 아들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일곱 아들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온에 있는 어느 동산의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일곱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울 때문에 비참하게 두 아들을 잃어버린 어떤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은 리스바입니다. 그 여인은 아들이 사형을 당했던 언덕에 올라가서 천막을 치고 아들의 시체를 지켰습니다. 낮에는 새들이 시체를 해치지 못하게 막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시체를 습격해 울까 뜯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약한 여자의 몸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6개월 동안이나 아들의 시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리스바 여인의 사건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리스바 여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켰고 다윗 왕도 크게 감동한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죽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은 7 명의 아들들의 유골을 거두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리스바 여인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만이 지닌 특징 몇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Unconditional Love)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입니다.

리스바여인은 나무에 달려 죽은 아들 곁에서 6 개월 동안이나 떠나지 아니하고 시체를 돌보며 그 고통을 견디는 모습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참혹한 죽음을 내려다 보시면서 극진한 사랑을 표현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시 2:7)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이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요 10:29)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머니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나, 형제, 친구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성격이 많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2) 자식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리스바 여인은 아들의 수치와 고통을 같이 나누기를 사양치 아니한 어머니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달려 죽은 아들의 저주스러운 주검을 보고 침을 뱉고 지나갔을 것이 분명했지만 이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수치와 고통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6 개월 동안 썩어 냄새 나는 시체와 말입니다. 자식의 어떠한 수치와 고통도 어머니의 사랑을 끊지는 못합니다. 어머니만이 자식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깝다고 말합니다.

3) 어머니의 사랑은 목숨을 주는 사랑입니다.

이 리스바 여인은 6 개월 동안이나 죽은 자식에게 새나 들짐승이 오지 못하게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목숨도 버리는 희생을 합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집들이 무너져 폐허가 되어버린 건물터미에서 구조대가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그 여인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 시체는 마치 절을 하듯 굽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고 엎드린채 숨져있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그 다급한 순간에도 자신의 아이를 구하고자 자신의 몸으로 돌들을 막아선 것입니다. 여인의 손에서 휴대폰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만약 네가 살아 남는다면 내가 널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렴"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과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구나'를 깨달았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주시기 바랍니다.
3. 이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지, 혹시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후회가 되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리스바 여인은 6개월간 하나님을 향해 자기 자녀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소망 없던 탕자 어거스틴이 돌아오기까지는 그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절망하는 모니카에게 암부로시우스 감독은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고 말했습니다. 결국 자녀를 향한 끊임없는 기도로 인해 탕자 어거스틴에서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경건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를 미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5 계명인 부모 공경은 언제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풍수지탄(風樹之嘆)이란 말이 있습니다. 효도를 하려 해도 이미 부모가 죽고 없어 효행을 다할 수 없는 슬픔을 뜻하는 말로, 부모가 살아 있을 때 효도하지 않으면 뒤에 한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부모님께 대해 감사하는 말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해주지 못한 것은 잘 기억하지만, 자신을 위해 헌신한 그 사랑의 마음은 쉽사리 잊어 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길러준 은혜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낳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낳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주고, 키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했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부모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헌신적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초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Tony Robbin 은 "Appreciation into Expectation"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하며 자란 자녀는 부모의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를 잊지 않지만, 고생을 모르는 자녀는 부모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가장이라면 어머니는 가정의 심장입니다. 성경은 어머니의 자력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 여자가 어머니인가?" 라는 질문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공경에 대한 것은 십계명에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축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 해서 자신들을 돌아 보며 부모님께 더욱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